

숲의 도시 나는 안산에 산다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52호

브라보 안산
BRAVO ANSAN



꽃피는 봄, 꽃다운 아이들

와동 꽃빛공원 내 양묘장

02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 복지는 물론 서민금융 서비스까지 한번에 받아볼 수 있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소개한다.

06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20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는 안산문화광장과 안산 일대를 가득 채워줄 최고의 거리예술공연팀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졌다.

08

안산 착한가게 시리즈

고향밥상 - 가족과 이웃이 먹는 음식
구룡대반점 - 수타짜장면이 단돈 4천원
푸짐한 세상 - 청결한 위생과 한결같은 맛
신북경 -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

12.13

미술도시 안산, 두 기획전시를 통해 그려보다

안산은 예술분야 중에서도 미술 자원이 풍부한 도시다. 얼마 전 끝난 전시 하나와 곧 열릴 전시 하나를 살펴본다. 두 전시를 통해 안산이 미술을 매개로 새롭게 인식되고 미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산 그리너스 FC 유소년 팀 선수 모집

문의전화 : 031 480 2002
구단 사무국 / 유소년 담당



관련 기사 5면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8년 3월 28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고용 · 복지 ·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번에! 일자리에 복지를 더하면 삶이 플러스 됩니다!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지만 막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일자리, 복지는 물론 서민금융 서비스까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소개한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센터)는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센터로 지난 2017년 6월 단원구 고잔동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복합적인 애로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일궈낸 대표적인 주민친화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가장 주된 업무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안산고용센터에 안산시일자리센터,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지사 등을 모았다. 그동안 고용센터의 주된 업무가 실업급여, 취업지원, 직업훈련, 직업진로지도였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존 고용센터에서 하는 업무 외에 복지서비스, 서민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업무에 있어 여성·중장년·장애인 관련 기관이 입주해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외국인이 많고, 파견근로가 빈번한 안산의 특색에 맞게 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파견근로에 대한 근로감독과 고용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란 상담사는 지난 11월에 방문한 A 씨 이야기를 했다. “A 씨는 H2(방문취업) 비자에서 F2(거주) 비자로 변경된 상황이었고 적지 않은 나이와 어떤 절차와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센터를 방문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던 A 씨를 위해 단기간에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를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이력서와 면접 코칭을 해 주었는데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해봤는데 회사에 잘 적응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또한, 센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919취업광장’(매월 19일, 휴일일 경우 다음날 진행)을 안산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안산시민이 다수 참여하는 대표적인 구인구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안산시와의 취업행사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60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으며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이후 올해 2월까지 안산시 등 참여기관의 알선을 통한 취업자수도 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 지원 가능

사회복지서비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긴급지원, 기초연금, 보육료를 포함한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복지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을 방문해야만 해결할 수 있던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받아 볼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확 줄었다. 취업을 위해 센터를 방문한 B 씨는 “생계가 곤란했는데 복지지원팀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수연 주무관은 “실직 등 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기준에 따라 복지지원이 가능하다”며 “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와 사회복지 등 본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상담’

서민금융상담 또한 가능하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참여한 서민금융지원센터는 2017년 11월 상록수역 시민사랑방에서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2층)로 이전, 과다한 부채 등 금융관련 어려움 해결

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 서민금융상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면 각종 고용·복지·서민금융 서비스 기관을 따로 갈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양현철)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청년·중장년·여성·장애인·외국인 등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개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이용하시거나, 업무창구를 잘 모를 경우, 2층 ‘초기상담창구’를 먼저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문 의 : 안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초기상담 031-412-6690~1)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안산시, 치매안심센터 설치해 치매고통 나눈다

단기쉼터 · 가족카페 · 공공후견 · 인지치료 프로그램 운영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3월 28일 단원보건소 3층에 문을 열었다.

단원보건소 3층에 설치된 센터는 지난 1월 11일 착공, 558.41㎡ 공간에 센터(341.79㎡), 쉼터(139.7㎡), 가족카페(76.92㎡)가 조성됐다. 총 사업비 6억여원이 투입된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의사 · 간호사 · 치료사 · 사회복지사 등 17명의 전문 인력이 만60세 이상 안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상담 · 등록관리, 쉼터운영, 가족지원, 인식개선 · 홍보 등의 다양

한 사업을 추진한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2년 주기로 치매 조기검진을 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혈액검사 · 뇌 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이뤄지는 감별 검사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위소득 120% 이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 된다. 인지저하 등 치매가 의심되는 만 60세 미만 조기검진이 필요한 어르신도 가능하다.

치매 등록환자에게는 월 2회 이상 전화 상담 등 맞춤형지원서비스와 치매치료관리비(연36만원 한도) 지원과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배부 서비스를 제공 한다.

쉼터는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 회상치료 등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작업 · 원예치료 등 인지자극 프로그램으로 환자의 치매 진행을 늦추고 건강생활을 돕는다. 또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치매가족교실과 자조모임을 열어 '돌보는 지혜', '치매 알기'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 역량 강화', '가족정서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치매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카페도 상시 운영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2018년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안산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상담 · 검진 · 사례관리 허브로서 역할을 다해 치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 의 : 안산시치매안심센터(031-481-348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꽃빛공원에서 들려오는 봄소리

나눔목공소, 버려지는 산림부산물로 '목공예 프로그램' 운영



‘숲의 도시 안산’

안산시를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숲’을 떠올리면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젊은 숲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지만 안산시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생을 다한 늙은 나무들, 잔가지들, 계절이 바뀌며 떨어진 열매들까지 정성껏 모아 시민의 삶으로 초대한다.

올 3월 단원구 외동에 ‘나눔목공소’가 문을 열었다. 꽃빛공원 내 위치한 나눔목공소(나눔목공체험장)는 산림사업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하는 ‘목공체험 공간’이다. 폐기되는 산림자원을 시민의 여가시간 활용, 취미활동과 연결시켜 쓰임새 있는 생활품으로 거듭나게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을부터 공원과 산림에서 수집한 나뭇가지, 도토리, 솔방울 등을 이용해 연필꽃이, 독서대, 미니트레이, 책꽂이, 문패 등을 만든다. 관계자는 “나무공예품을 시민의 가정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자연 친화적 활동의 증가, 숲의 자원화 실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도시 숲의 질적 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공체험지도사 박정아 · 박인 씨는 “아이들은 공원이나 산에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버려

진 것,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목공체험을 통해 인식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산이 준 선물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하고 고민하는 동안 창의성이 발전한 것이죠. 상상력 가득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체험에 참가한 알곡어린이집 박미자 선생님은 “자연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적인 치유를 얻는 것 같다.” 상록장애인복지관 이민철 선생님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작품을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즐겁다.”고 말했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은 유치원(20명 내외), 초 · 중 · 고생(8명 내외)을 대상으로 매주 화 · 수 · 목요일, 1일 2회 운영된다. 유치부는 오전(10:30~11:30), 초 · 중 · 고부는 오후(14:00~16:00). 유치부는 문패, 수건걸이, 연필꽃이, 초 · 중 · 고부는 미니트레이, 독서대, 책꽂이 만들기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접수는 전화로 하면 된다.

◇ 문 의 : 안산나눔목공체험장(010-2943-2152)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net / 사진_김진국 기자

...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은,
슬픔이나 희망이냐의 선택입니다.
어제나 내일이냐의 선택입니다.
갈등이나 화합이냐의 선택입니다.
정체나 새로운 도약이냐의 선택입니다.

세월호 추모공간은,
50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논의할 것이며,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을 것이며,
친환경적으로, 작은 규모로 화랑유원지 리모델링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로 조성할 것입니다.

1



‘분향소를 몇 년이고 그대로 둘 것인가?’

VS

‘오는 4주기를 계기로 세월호 문제를 정리하고
보다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것인가?’

안산시의 선택은 4주기를 계기로 세월호 문제를
정리하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2



안산시는 이제 갈등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과 밝은 미래의 상징이 될
세월호 추모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안산 시민들에게는 희망을 전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3



추모공간은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추모공간은 화랑유원지(18만 7천평)의
유희부지 일부공간(3.8%)에 조성되고,
이중 봉안시설은 약 200평 이내의 규모입니다.

또한, 추모공간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공모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4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지역발전에 기여

지하에 조성예정인 봉안시설 또한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화랑유원지 전체 리모델링과 인근 초지역세권과 연계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각지의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가꾸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추모공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성

안산시에 만들어지는 추모공간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시는 다양한 의견 청취와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대표, 유가족, 이해당사자 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50인 위원회'를 구성, 세부 건립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산그리너스FC, 성남 원정 무승부...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홈 개막전 대전에 극적 역전승 후 안양에게도 승리, 초반 분위기 '상승'

시즌 초반 안산그리너스FC(이하 '안산')의 기세가 상당하다. 총 4게임에서 2승 1무 1패 승점 7점을 확보하며, K리그2에서 부천, 부산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3월 25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4라운드 성남FC와의 원정 경기에서 안산은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발휘하며 성남과 0-0 무승부를 기록, 승점 1점을 획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는 박빙이었고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안산의 입장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골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후반전에는 라울과 코네가 투톱을 이루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흥실 감독은 "라울과 코네가 동계훈련 때 같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다. 지난 경기 때 잠깐 해봤다"면서 "아직까지는 둘이 잘 맞지 않는다. 라울의 체력이 관건이다. 부상에서 막 복귀해서 체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경기 더 호흡을 맞추다보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라운드 FC안양과의 홈경기는 2대1 극적인 승리

이에 앞서 3월 17일 치러진 FC안양과의 3라운드 홈경기에서는 2대1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질주했다.

안산은 부상에서 복귀해 올 시즌 첫 출전을 한 라울과 코네, 최호주가 공격라인에 섰다. 미드필더진에는 이건과 한지원, 최명희, 홍동현이 나섰고, 수비에는 송주호, 박준희 이 인재가, 골문은 이희성이 지켰다.

경기 초반 안산은 공격적으로 나서며 몇 차례 안양의 골문을 위협했다. 결국 전반 23분, 라울이 오른쪽 측면을 빠른 드리블로 돌파를 하며 수비수를 통과했고, 순간적으로 높이 튕겨 올라간 볼을 홍동현이 달려들며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다. 이어진 안산의 계속되는 공격과 함께 전반전을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안산은 라울이 나오고 김태현이 들어갔다. 그리고 후반 4분, 노마크 상태에서 크로스를 받은 안양의 정희웅이 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1대1 동점 상황이 되

었다. 하지만 이어진 후반전, 안산은 물러서지 않고 후반 21분 공격수 김종석을 투입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결국 후반 25분 최호주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면서 PK를 얻어냈고, 코네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2대1로 다시 앞서나갔다. 지난 대전 경기부터 날카로운 돌파와 예리한 슈팅을 보여주던 코네는 마수걸이 골을 성공시키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며 2대1 승리를 따냈다. 지난 대전 전에 이은 홈 2연승으로 안산은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한편, 안산은 다음주 FA컵 경기까지 있어 일정이 만만치 않다. 3월 28일에는 수원대학교와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3월 31일에는 부산아이파크와 원정 경기에 나서야 한다.

안산 그리너스 FC, 유소년 팀 U18, U15, U12 선수 모집

안산 그리너스 FC가 미래의 프로팀에서 활약할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U18, U15, U12 유소년 팀 선수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대상은 U12 초등학교 3~6학년, U15 중학교 1~2학년, U18은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사무국 상담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올 시즌 '2018 K리그 주니어'에서 안산 U18 팀은 현재 1승 1무의 기록으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라운드 강원을 상대로 2:1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창단 두 번째 시즌 만에 첫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U18 배승현 감독은 "생각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고 지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유소년 선수들에게 축구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안산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다"라며 이번 선수 모집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유소년 팀 선수 모집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단 사무국 (031-480-2002) 유소년 담당을 통해 가능하다.

안산그리너스 FC 2017

KEB 하나은행 K LEAGUE 2 2018 안산그리너스 FC 홈경기 일정	
04.07 15:00(토) VS 수원	04.22 15:00(일) VS 부천
05.06 15:00(일) VS 부산	06.03 19:00(일) VS 서울
05.21 19:30(월) VS 성남	06.09 19:00(토) VS 광주
07.07 19:00(토) VS 아산	

안산 그리너스 FC | ansan_greeners_fc | www.greenersf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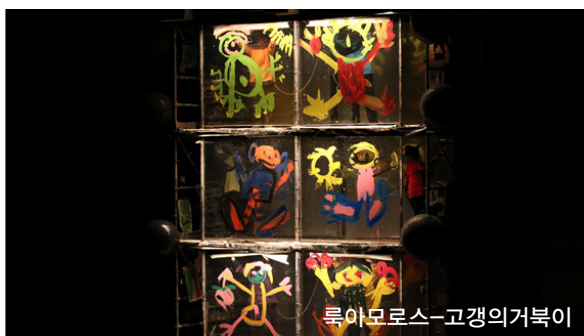


초강력 라인업 공개... 5월5일부터 7일까지 안산일대에서 열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 시작해 안산에서 매년 5월 개최하는 거리예술축제이다. 안산의 거리와 광장을 무대삼아 도시민의 일상과 삶터 이야기를 연극, 퍼포먼스,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다양한 공연으로 풀어내고 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2018안산국제거리극축제(이하 거리극축제)에서는 안산문화광장과 안산 일대를 가득 채워줄 최고의 거리예술공연팀을 만나 볼 수 있으며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삶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담은 '폐막작'

이번 거리극축제의 폐막작은 프랑스 극단 룩아모로스(Compagnie Lucamoros)가 오른다. 룩아모로스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삶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공유하는 거리예술의 대표 단체로, 이번 축제의 폐막에서는 '고갱의 거북이(Gauguin's Turtle)'라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룩아모로스-고갱의거북이

4층 철제 구조물 위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페인팅쇼 '고갱의 거북이'는 6명의 화가들의 몸짓과 이에 따라 고조되는 나레이터의 목소리, 그리고 생생한 음악이 함께 조화되면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이들은 작품 안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퍼포먼스 양식을 활용하여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지닌 매력을 보여준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대표 얼굴 '공식참가작'

공식참가작은 완성도와 차별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작품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호평을 받고 있는 해

외작품과 활발한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국내작품을 선정하여 축제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번 공식참가작은 총 70여개의 작품 중 18개이며 국내 9개 작품과 해외 9개 작품이 준비되어있다. 작년보다 2배정도 늘어난 숫자로 다양한 국내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거리극축제에서 최초로 만나볼 수 있는 신작들이 많으며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작품들도 확대되었다.

VIEW POINT 1. 국내 최초로 만나보는 신작

국내외 다양한 신작 중 하나인 극공작소 마방진의 '로드씨 어터 돈키호테'는 마방진의 새로운 도전이 담긴 신작이다. 작품은 각기 다른 두 곳의 장소에서 두 개의 돈키호테 이야기로 시작한다. 관객들은 두 개의 돈키호테의 여정을 함께하게 되고, 하나의 장소에 마주하게 되는 구성이다.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옛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관객들과 함께 이동하며 완성되는 이번 작품은 대형 오브제로 재미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특수효과로 박진감을 더할 예정이다.

VIEW POINT 2. 확대된 시민참여 작품

브라질에서 온 데스비오 콜레티보(Desvio Coletivo)팀의 'CEGOS(눈 먼 자들)'는 정장 복장 위에 온 몸을 진흙으로 덮고 눈을 가리고 천천히 도시를 걷는 작품이다. 작품을 통해 인간관계를 소멸시키는 자본주의 이익과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현대 사회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을 제안한다. 다양한 시각에서 주목할 수 있는 열린 작업이며 도시형 공연인 'CEGOS(눈 먼 자들)'는 이번 거리극축



데스비오콜레티보-눈 먼 자들

제에서는 사전 워크숍을 실시해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자유구역 #유스컬처와 팝업아트리트 #놀이하는 도시에서도 다양한 시민참여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안산 도시민의 삶 이야기를 담아낸 '안산리서치'

'안산리서치'는 안산의 이야기와 시민들의 일상을 다룬 거리극축제만의 특별한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달리 안산의 지역성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아 다른 축제에선 만나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2018안산리서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1팀과 섭외 단체 2팀으로 총 3가지 작품으로 구성된다.

특히 '코끼리들이 웃는다'의 '물질 2 물질하다가'는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프리카 난민여성들에 주목했다. 이들과 함께 커뮤니티 작업을 통해 '물질시리즈'의 죽음의 문턱과 마주한 순간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경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가족과 함께 하는 '광대의 도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광대의 도시'는 서커스, 마임, 코미디 등 비교적 대중적인 장르 공연으로 가족단위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올해는 국내외 16개 작품이 참여한다. 그 중 일본의 시부벨레(Sivouplait)의 '우스꽝스런 커플(A Couple in Humorous White)'은 사랑에 빠진 완벽한 커플을 그들만의 비정상적인 스타일의 마임으로 묘사한다. 시부벨레는 침묵의 이질적인 영향을 기반으로 한 영화, 판토크림, 일본 만화, 무용, 신체를 이용한 코메디 등을 이용해 사랑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재미있는 방법을 찾는다.

바우 댄스 컴퍼니의 '끼리끼리'는 옛날 장터에서 보여 지던 한국의 전통 각설이 또는 광대의 정서를 찾아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으로 재주를 극대화 하는 작품이다. 전통 국악의 음악과 스토리를 입혀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대 예술의 공존을 통해서 잊혀져서 안 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야기한다. 바우 댄스 컴퍼니는 무용들 기반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한 단체이며,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작품 활동하고 있다.

◇ 문 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33)



© 김진국 기자

달래 · 냉이 · 쑥 · 돌나물 봄 향기가득 제철재료가 풍성한 시민시장으로 장보러 가요

오늘은 5일장 안산 시민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새벽부터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려서 “오늘 장이 설 수 있을까” 걱정됐다. 다행히 오후에는 장보라고 비가 그쳤다. 며칠 전 은행에서 구입한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상품권도 챙겨 집을 나섰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월 30만원까지 판매한다. 농협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할인율과 한도액이 늘어난다. 올 설에는 10% 할인에 5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도 편리하다. 시민시장 상인 분들은 두 말 없이 차액을 거슬러 준다.

달래 · 냉이 · 쑥 · 돌나물 등 봄 향기 물씬 풍기는 나물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제철식품이 풍성한 전통시장만의 진풍경이다. 시민시장은 꽃마늘이 나올 때면 이곳이 마늘시장인가 싶을 정도로 여기저기 마늘전이 열린다. 알이 작은 것부터 굵은 것까지 크기도 다양하고 가격도 다 다르다.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면서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보고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다보면 마트와는 또 다른 장보는 재미가 느껴진다.

5일마다 시민시장에 오다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전통시장에는 없는 게 없다. 메주도 나와 있다. 순창에서 올라온 거라고 파는 분은 설명한다. 정월에 담는 장은 짜지 않고 맛있게 된다는데 설이 2월이었으니까 지금은 음력 정월이다. 말(午) 날은 장 담기에 좋은 날이라지. 전통장엔 웅기항아리가 제격이다. 시민시장 뒤편 초지복지관을 마주보고 서면 왼편에 웅기장수가 있다. 메주 한 말 들어 항아리와 더 크고 작은 다양한 크기의 항아리들을 판다. 대중교통으로 왔는데 저 항아리를 사면 어떻게 가져가지. 머리에 이고가나.

다음 주는 발작물을 시작하는 4월이다. 시민시장에는 고추 · 상추 · 치커리 · 쑥갓 · 양상추 · 토마토 · 오이 · 방울토마토 등 각종 모종으로 채소밭이 펼쳐지고, 지지대 · 호미 등 농기구를 사려는 도시농부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 안산시민시장 개장일 5,10, 15, 20, 25, 30일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살림에 도움 되고 지구도 살리는 재활용 나눔 장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서 열린다



“딸랑이 장난감 얼마예요? 200원이에요. 곰 인형은요? 500원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이 책은요? 그 책도 500원입니다.”

“이 아기 신발은 5,000원인데요. 거의 새 것과 같아요. 아이가 금방 커서 몇 번 안 신고 작아졌어요.”

3월 24일 재활용 나눔 장터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은 안 쓰는 물건을 이웃과

나누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가 자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장난감, 몇 번 신

지 않은 신발, 싫증나거나 작아져서 안 입는 옷가지, 한 번 읽고 덮어 뒀던 책 등 다양한 물건이 선보이고 새 주인을 맞았다.

한수호(초지동) 씨는 “안 입는 옷이나 신발 등은 그냥 버렸는데, 재활용 나눔 장터에 갖고 나와 이웃과 나누고, 돈도 생기고, 또 지구환경 보존에도 도움 되니 아주 좋습니다.”라고 했다. 9살 7살 두 아이와 함께 나온 부부는 “아이들 안 갖고 노는 장난감 가지고 나왔는데요. 소풍 온 것처럼 아이들이 즐거워하네요. 내게 필요 없는 물건 친구들과 나눠 쓰는 문화를 아이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재활용 나눔 장터는 다양한 공연과 무료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메타세콰이어 열매 등 자연물을 이용한 브로치 · 머리 핀과 같은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행사를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폐가전제품(핸드폰, MP3 등), 폐건전지, 우유팩을 화장지, 에코 백 등 친환경물품으로 바꿔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가구와 자투리 원단을 활용해 만든 책꽂이, 화분대, 목침, 앞치마도 1~2천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돼 인기를 끌었다. 재활용 나눔 장터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신분증과 돗자리를 지참하고 현장에서 자리 번호를 받으면 갖고 나온 물건을 팔 수 있다. 자리번호 배정은 오후 1시 30분까지다. 좋은 자리를 원하면 10시 개장시간에 맞춰야 한다. 3월 재활용 나눔 장터는 총 210 팀이 참여했고 개장과 동시에 120번까지 자리가 배정됐다. 4월엔 넷째 주 토요일인 28일에 장이 열린다.

◇ 문 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사진_김진국 기자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③



일동 고향밥상

내 가족, 우리 이웃이 먹는 음식... 손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장 큰 힘...



일동 고향밥상 전속자 사장

한한 봄 햇살이 식당 안으로 쏟아지며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일동 고향밥상. 늘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 12년째 한곳에서 변함없이 동네를 지키고 있는 식당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고 사장님은 어떤 분일까 궁금해졌다.

Q. 10년이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만의 경영철학이나 비결이 있다면?

특별할 계획은 없지만 우리 가족과 식당직원도 손님들과 같

은 반찬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내 가족이 먹는 밥인데, 당연히 정성을 다하지 않겠나? 그런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않을까 한다. 동네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일동에 속소를 두고 현장일 하시는 분들도 단체로 많이 식당을 찾는다. 근무 전후 아침과 저녁 식사를 식당에서 해결한다. 현장근처에서 먹지 않고 꼭 우리식당에 와서 먹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으며 좋아해 주신다. 가격에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손님들이 싸고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 가장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다. 어머니가 직접 농사짓는 채소를 재료로 사용한다. 직접 농사지은 양파며 쪽파 같은 제철 채소들이 일주일에 2~3번씩 완도에서 올라온다. 겨울이면 직접 농사지은 배추를 받아서 김치를 담근다.

Q. 긴 시간 식당을 운영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느 날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며, '이렇게 한 곳에서 변치 않고 우리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 늘 맛있게 먹고 있

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순간 울컥하며 감동했다.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정성스럽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쌓이는 것 같다. 우리 식당을 찾는 모든 분들이 따뜻한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겠다.

고향밥상은 한식전문식당으로 가정식 백반(5,000원)과 황태구이, 찌개류가 인기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명절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문 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27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 사진_김진국 기자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일동로 13-1(1층)
전 화 : 031) 415-9239

구룡대반점

수타 짜장면이 단돈 4천원



안산 중앙동에 위치해 오랫동안 수타면을 만들어온 구룡대반점.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손님이 방문해 식사가 한창이다. 수타짜장면을 보기 힘든 요즘, 구룡대반점은 옛시절 수타면의 맛을 추억하기 위해 방문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4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주인장은 매일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국내산 재료를 사용해 맛 또한 훌륭하다. 식사하는 곳에서 주방이 잘 보여 위생적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주소 : 단원구 고잔2길 42(고잔동)
전화 : 031-483-9998 / 정기휴일 : 매주 화요일

푸짐한 세상

저렴한 가격! 맛의 차별화!



주메뉴인 녹차 삼겹살(1인분 7천원)은 가성비와 맛이 좋아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그 맛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된다. 몇 년 전 착한 가격업소로 선정된 이후, 물가가 올라도 가격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푸짐한세상이라는 상호답게 커다란 불판 위에 삼겹살과 양파, 마늘, 김치, 팽이버섯이 올라와 빈틈을 주지 않는다. 주인 부부는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으로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며 "무엇보다 청결한 위생과 한결같은 맛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주소 : 단원구 화랑로 149 초지동 시민시장 3동 3호
전화 : 031-485-1656 / 매월 첫 · 셋째주 화요일(장날과 겹치면 정상 영업)

신북경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 먹었던 추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앞에 위치한 중화요리 '신북경'이다. 짜장면이 단돈 3천 5백원으로 매우 저렴해 대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홍합, 오징어, 양파, 부추, 당근, 죽순, 호박 등... 신선하고 다양한 해물과 야채들이 듬뿍 들어간 얼큰한 짬뽕은 단돈 4천원이다. 짜장 혹은 짬뽕 2개 이상을 주문하면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며, 학생인 경우에는 공기밥을 무료로 준다.

주소 : 상록구 한양대학로 68(사동)
전화 : 031-502-8001 / 정기휴일 : 명절만 휴무



인터뷰 ◆ 들꽃피는학교 교장 이재호 목사

청소년 문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

들꽃피는학교(이하 들꽃)가 설립될 때부터 멘토이자 후원자, 이사로 활동하던 이재호牧사는 2005년 이곳에 교장으로 내려와 청소년들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초창기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삶이 쉬운 건 아니었다. 아이들의 지원자가 되겠다는 결심은 생각보다 막 나가던 아이들을 보며 산산이 부서졌다. “6개월 정도 변민하다 제가 교만했다는 걸 알게 됐죠. 인간 대 인간으로 타인을 어떤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더라고요.” 그 깨달음은 이후 청소년 문제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이자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었고, 들꽃의 역할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들꽃피는학교의 존재이유

들꽃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때론 교사들도 애들이 알집고 괴썸할 때가 있죠. 어떨 땐 애들을 내보내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럴 때면 ‘미안하다 네가 나가야되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그 학생들을 위해 만든 학교니까요. 저는 교사들한테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점, 철학, 자세만 교육해요. 그게 시작과 끝이자 전부예요.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학교는 일단 성적으로 서열을 나누고 이 경쟁에서 떨어

진 아이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죠. 어떤 사람이건 상대방의 시선이 어떤지 금방 알아요.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가 거기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졸업장을 따야 되고 나가면 할 게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강다구가 좋은 애들이 돈 벌러 나가죠. 흔히 노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네들은 문제없어요. 알바 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 아이들은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들꽃피는학교의 변화와 선택

지난 5년 사이에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들꽃을 다니는 절대적인 이유가 제도권 학교에 다니기 어려워서였는데, 지금은 일반 학교가 문턱을 낮춰 재량과 자율성을 확대돼 일반학교를 다니기가 수월해졌어요. 또한, 알바시장이 늘어나면서 공부보다 생존이 우선인 아이들은 돈 버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청소년들의 상황을 보면서 들꽃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들꽃 프로그램을 정리하면서, 대안으로 카페학교를 준비했는데 연착륙에 성공했어요. 여기서 진로체험도 하고 알바하면서 돈도 벌



게 됐죠. 4년 전 독서실이 있던 자리에 카페 피네를 만들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도 받았어요. 앞으로 직업체험이나 창업 영역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커리큘럼도 정비하면서 점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학교로 나갈 생각이예요.

저는 교사들한테 하나의 관점만 견지하라고 말해요. 지금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행동은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 잘못에 대해 딱지를 부쳐봐야 나아질 수가 없죠.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인식개선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요. 청소년들의 행복은 늘 내일로 유보되는 거죠. 고정된 관점과 인식을 견지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문 의 : 들꽃피는학교(031-486-88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6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새 학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해밀교실’

심리상담 · 진로탐색 · 검정고시 지원 등 지지대 역할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심리상담 · 진로탐색 · 검정고시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해밀교실’을 운영한다.

초지중합사회복지관 2층 제과 · 제빵 교실. 10대 청소년 네명과 선생님 두 분이 제빵 강사 시연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오늘은 해밀교실에서 소시지빵 만들기 수업이 있는 날이다. 60g씩 반죽을 떼어내 소시지를 감싸고, 감싼 반죽을 가위로 어긋하게 칼집을 넣어 양쪽으로 넓게 펼쳐 빵 모양을 만든다. 다진 양파를 마요네즈와 버무려 고명으로 얹고

파슬리 가루를 뿌리면 준비 끝이다. 180도 예열된 오븐에 20분간 구워내면 냄새도 훌륭한 빵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학교를 그만두고 해밀교실에서 새 학기를 맞이한 김남호(가명 · 16세)군은 “수업에 참여하기 전까진 빵은 제과점에서 사먹는다고 생각했지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처음 해보는 빵 만들기 수업이 무척 재미있다.”고 했다. 남호 군은 요리실습 · 바리스타 체험 · 스포츠활동 · 심리상담으로 이어지는 해밀교실 수업에 빠지지 않고 열심이다.

남호 군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점차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주변 환경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마음 한구석에 우울증으로 자리 잡았다. 친구들이 학교에 가있을 시간에는 어울릴 또래 친구도, 마땅히 갈 곳도 없이 방에서 게임을 했다. 김남호 군 같은 학생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 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중도에 학교는 그만두었다더라도 학업만큼은 중단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돕는다. 진로탐색 중

심의 해밀교실과 검정고시 준비 스마트 교실, 자격증 취득반, 심리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해밀교실 박형준 담당자는 “요즘 자발적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데,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정형편이 어려울 거야, 부모는 나쁜 부모겠지, 학교를 안 다닌다니 비행을 저질렀군’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기성세대의 따가운 시선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제약이 된다”고 말했다. 박형준 씨는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일 올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곳”이라며 독립건물이 마련되어 학교 밖 청소년이 한 공간 안에서 수업 받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밀교실’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우리말 ‘해밀’에서 따온 것으로, 막막하고 분명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한다.

◇문 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밀교실(031-364-102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⑮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똑똑한 청년 기업 '독독(DokDog)'



DokDog

청년이기에 도전의 기회...

반려동물 1천만 가구시대가 됐다. 연간 애견시장 규모는 약 1조7천억 정도로 성장했고, 반려동물은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청년큐브 초지캠프(시넨랩 안산)에는 애견산업으로 입주한 '독독'이 있다. 브랜드 네임 '독독(DokDog)'은 '홀로(獨, Dok) 남겨지는 개(Dog)'라는 뜻으로 혼자 체력을 관리하는 '똑똑'한 개의 의미도 담겨 있다. 독독의 안종현 대표(32세)를 만났다.

혼자 애완견을 키우던 안 대표는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바쁜 현대인들이 개를 데리고 매일 산책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반려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러닝머신을 개발했다. 안 대표는 "모든 개들은 산책을 좋아한다. 산책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온종일 집안에서 혼자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에게 산책 이상의 훌륭한 선물은 없다. 집안에 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비만에 걸리기 쉽다"며 "주인이 없어도 혼자 운동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대학 졸업 후 2년여간 건설회사에 다녔던 안 대표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임원진을 보며 자신의 미래에 회의감이 들면서 사업을 구상했다고 했다.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아이템이 선정되면서 창업을 결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는 1년 동안 120시간 창업 교육과 사업비, 사무공간도 지원을 받았다. 창업청년 8명에게 매칭 된 전담교수의 안내를 받으며 아이템을 발전시켰다. 사관학교에서 알게 된 임성희 씨와 팀을 꾸렸고, 사관학교에서 청년큐브를 소개받아 입주했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안 대표는 제품 모델링을,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임성희 씨가 디자인을 맡고 있다. 제품은 현재 특허 출원 중으로 곧 시제품이 나올 예정이다. 이후 대형·소형견 등 견종에 맞춰 세팅할 수 있도록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에 출시할 계획이다.

안 대표는 "애견산업은 현재 포화상태일 수도 있지만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능성에 희망을 얻는다. 청년이기에 도전의 기회가 있는 것 같다"며 "첫 창업이라 모르는 게 많지만 청년큐브 안에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니 힘이 되고, 독립된 공간이 생겨 몰입하기 좋다. 현재 시제품 점검하면서 다른 아이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독독(010-9261-266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우리의 전통가락을 잇는 풍물마당 '터주'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우리의 풍습, 소중한 우리의 것이 지켜지길...



우리 전통가락과 지역문화예술을 지키며, 지역문화사업과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경기도 지정 전문공연 예술단체가 있다. 소중한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을 갖고 활동하는 '풍물마당 터주'를 소개한다.

지난 3월 1일, 안산문화원에서는 풍물마당 터주와 안산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정월대보름 달집축제'가 열렸다. 팽이치기,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쥐불놀이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마당과 와리풍물놀이보존회, 안산경기민요단, 실버풍물단 등의 전통공연이 이어졌다. 끝으로 달집을 태우며 소원을 빌고 그 주위를 도는 강강술래와 대동놀이로 축제가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풍물마당 터주는 1997년 창단 이후 21년여 동안 사물놀이와 전통국악공연을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지정 전문공연 예술단체로, 2017년 1월에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창단 당시 장구, 팽과리, 징, 북을 맡을 인원이 부족해 시흥 '꼭두쇠'와 함께 공연을 했고, 2004년에는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선생의 '민족음악원안산지부'에서도 활동했다. 현

재는 서울예대와 단국대 대학원에서 국악과를 전공한 함주명 공연단장을 필두로 국악을 전공한 젊은 연주자 7명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풍물마당터주는 안산민예총 풍물분과, 경기민족국악연합 회원단체로 활동하며 지역문화사업과 교육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역문화 사업은 일반인·실버·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습을 한 뒤 연 1회 정기연주회를 열고, 교육 사업은 안산 혁신교육지구 'Eco-문화예술사업' 등에 강사를 파견해 풍물 교실을 진행한다. 또, 지역 내 풍물동호회를 이끌고, 전공교육자를 육성하는 한편 국악을 전공한 젊은 예술가들이 터주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우리의 전통가락을 이어나가고 있다.

차도열 대표는 "안산에서는 정월대보름행사가 매년 열리지 않는다.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우리의 풍습이 사라져가는 게 안타깝다"며 "소중한 우리의 것을 지켜야한다는 소명으로 3년 전부터 대보름행사를 기획해 안산문화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물마당 터주는 단원구 와동지역의 '와리풍물놀이'와 초지동 둔배미 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둔배미놀이'를 보존하는 전통문화예술 계승사업에 힘을 쏟으며, 전통사물놀이를 기반으로 터주의 음악적 색채를 가미한 사물놀이 공연의 진수를 보여준다. 여러 대의 장구 연주자들의 변주와 호흡으로 장구재비들의 기량을 부각시키는 '삼도설장고', 장구, 팽과리, 징, 북의 배음 구성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삼도사물놀이', 열린마당에서 장단과 놀음사위로 이루어진 재비들이 자신의 기교와 멋을 보여주는 연희 '사물판굿'을 펼친다.

◇문의 : 풍물마당 터주(031-494-797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세월호 참사 4주기,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다 250명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기억하는 방법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청소년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화랑유원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4.16안산시민연대는 “250명의 꿈을 잃은 안산에서, 꿈꾸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지지”하며, “4.16이후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사회에 그동안 세상 밖으로 내뱉지 못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제2회 Express one's memory 4.16 4주기 창작 퍼포먼스 대회 ‘별꿈’은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한 청소년들의 춤과 노래, 랩을 볼 수 있는 자리다. ‘별꿈’은 250명의 별이 된 아이들의 꿈을 기억하고, 별이 되어 그 꿈을 표현해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춤과 노래를 표현하고 싶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4월 9일까지 구글 페이지(<http://ver.kr/PRJFnE>)에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5분 이내 작품 동영상 촬영 파일을 이메일(416ansan@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동영상 예선 심사를 거친 후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본선대회는 4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화랑유원지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상금 및 상패가 시상될 예정이다.

두 번째 ‘꿈톡’은 미래 꿈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멘토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다. 꽃다운 아이들의 수많은 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안산에서 또래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은 세월호 참사를 새롭게 기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4월 15일 오후 4시에 화랑유원지 캠프장에서 열리는 ‘꿈톡’은 여행전문가, 웹툰작가, 래퍼, 게임개발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멘토들과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전국 중고생 연령의 청소년(선착순 300명)은 누구나 구글 페이지(<https://goo.gl/forms/Cn7hVHgu9PCChuGf2>)를 통해 희망하는 꿈 멘토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다. 꿈 멘토와 이야기 시간을 가진 후 세월호 추모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 416청소년네트워크 ‘민들레이야기’는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발언자를 모집해, 추모곡 합창과 자유발언으로 세월호 4주기 추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추모식 첫 순서에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합창하고, 자유발언 행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첫 발걸음,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문의 : 4.16안산시민연대 사무국(031-483-0416)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인터뷰◆

2018 안산시
인턴 직원

“행정경험, 취업활동에 도움돼요”

안산시는 안산시민이 행정업무 경험을 쌓아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매년 청년과 여성, 저소득층,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인턴 직원을 뽑는다.

올해는 지난 1월 18일 모집공고 후 높은 경쟁률 속에 65명을 채용했다. 합격자들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 9,080원에 4대 보험 포함 총 189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근무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 8개월이다. 3월 2일 첫 출근해 안산시 행정과 보건, 사회복지, 지적, 환경, 문화·예술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직원들을 만났다.

다음은 김홍진, 김민영, 한혜진, 정다희씨 등 4명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이다.

김홍진(25세 · 정책기획과)

저는 카페와 학원 아르바이트 외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데요. 취업준비 중에 알게 된 안산시일자리센터에서 안산시 인턴 직원 모집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현재 정책기획과에서 청년정책관련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 보조, 우편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기업이나 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저에게 이 일은 업무와 사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수입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김민영(41세 · 상록수보건소)

저는 경력단절로 행정인턴 일을 하게 됐고요. 현재 상록수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 치위생사로 근무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일을 못하게 됐고 10년 정도 경력공백이 생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위생사를 구한다는 병원에 이력서를 보내면 회신 이 안 왔습니다. 계속 안 되다 보니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덜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년에 행정복지센터 통해 인턴 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올해까지 두 번째 참여입니다. 이 일이 토대가 돼서 8개월 후에도 계속 일 할 수 있는 곳과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한혜진(30세 · 다문화지원본부)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지 10년차고요. 한국인 남편과 10살배기 딸아이가 있습니다. 한국말 잘하고 싶고 좋은 일자리 원해서 2013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관광학과에 입학해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교육장 관리와 수업이 없는 날 외국인



상담과 사무보조를 합니다. 인턴근무로 얻는 수입은 가계에 큰 보탬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친정어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번 돈으로 용돈도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다희(32세 · 복지정책과)

저도 경력단절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일을 못하고 1년을 쉬었는데 그 1년이 경력단절이 됐습니다. 하던 일로 복귀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지정책과에서 인턴직원으로서 후원사업과 바우처 관련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될 생각입니다.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9)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Review & Preview

미술의 도시 안산 두 기획전시를 통해 그려보다

안산시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다.

관광의 잠재성에는 미술 분야도 포함된다. 안산은 단원 김홍도와는 대표적인 미술 작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를 관광 콘텐츠화하기 위해 축제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단원의 풍류와 멋을 찾아가는 '2018 안산미술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집약적인 미술행사를 추진하며, 지역 내 예술단체 및 미술관과 박물관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2018 미술주간 올해의 미술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다양한 미술행사들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 승계사업을 통해 지역미술의 일상화 및 활성화를 이루어 지역 관광산업 발전까지 도모한다는 생각이다.

시리즈로 보도한다.

Review

끝나지 않은 전시 장성순 기증 특별전



사진 속 젊은 장성순과 현재의 장성순. 촬영 2017년 12월 12일

지난 해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린 장성순 기증 특별전은 안산 미술사의 기념비적인 전시로 남을 것이다.

장성순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본인이 갖는 위상에 비해 대중적으로는 평가절하되어 있었다는 평이다.

장성순 작가는 박서보, 김창열 등과 함께 한국미술가협회를 창립하고 1960년대 앵포르멜(Informel) 운동을 주도한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이다. 평론가 박우찬은 한 기고문을 통해, 장성순을 "주관적으로 형태를 파괴하여 해체 시키는 뜨거운 추상주의로, 강렬한 표현과 격정적인 주관을 표출하는 경향의 화가"라고 평했다.

또 "한국 현대미술은 겨우 6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시작과 중심에 장성순 화백이 있다. 그의 기증으로 안산시는 한국 추상미술, 한국현대미술의 역사를 소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해 장성순 작가는 평생 그린 작품의 절반에 해당하는 207점을 안산시에 기증했다. 별도의 조건 없이 자신의 작품을 안산 시민의 품에 안기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안산문화재단은 거장의 순수한 작품 기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관 내벽 전체를 새롭게 칠하고 전시기간 중 항온항습 유지를 위한 설비를 정비하여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 약 3개월에 걸친 특별전을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장성순 기증 특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흑한의 날씨 속에서도 무려 8천 여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이 기념비적인 전시회를 다녀갔지만 아직 많은 작품이 전시관 벽에 걸리지 않았다. 수많은 전시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평론가 박우찬의 평처럼 '한국현대미술의 역사를 소장'하였으니 다양한 전시 기획도 가능하다. 모던과 포스트 모던, 그리고 구상 대 추상, 추상 속의 또 다른 추상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고 해체하고 또 다시 섞어보는 무한한 기획이 가능하다. 노(老) 거장의 특별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다.

◆앵포르멜(Informel)이란?

앵포르멜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회화운동으로 Informel은 in(not)+form, 즉 form(형태)를 부정·파괴(not)시켜 추상화시키는 추상미술을 말한다.



Preview

서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 Inter City展 _ 경계의 무늬

Inter-City전은 안산과 김해 작가들의 교류전이다. 미적 교류가 열리는 곳은 두 도시의 본질이 아니라 경계다. 상대의 본영에 깊숙이 침투하지 않고 경계에서 지정학적 위치의 '다름'과 정서의 '차이'를 더듬는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이 기획전은 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작품으로 체현한 도시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전시다.

경계에 머문다는 것은 상대의 본질에 더 다가서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경계에 오래 머물수록 그 열망 또한 증폭된다. 두 도시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관객이다. 경계가 무너진 시대에 관객은 두 도시의 작가들을 통해 상호성(Inter)을 확인한다.

'Inter City展 경계의 무늬'는 관람객이 안산과 김해 두 도시의 작가들과 함께 서로 상대 도시

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같은 전시다. 미술 장르의 다변화, 도시간 경계의 모호성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은 작가들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듬어 보는 여행이다. 이동수단의 발달과 디지털 혁신은 하루 생활권이라는 물리적 좁힘과, 검색을 통한 정보 확장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빠른 이동과 대량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시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이라는 경계는 존재하고 그 이유는 지역간 '다름'이 있기 때문이다.

고향이 안산 또는 김해이거나 혹은 도시의 매력에 이끌려 그 도시에 정착한 30~40대 젊은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한다. 각자의 사연에 기인한 미술작업이 한 작가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발견하는 전시이자 예술가가 지닌 감각이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하다. 특히 회화, 영상, 사진, 설치, 조각,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80여 작품이 두 도시의 상호성을 매개하는 작품으로 전시되어 두 도시 작가들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전시 정보

안산(단원미술관) 2018년 4월 5일(목) - 5월 7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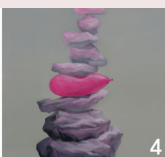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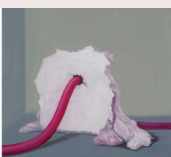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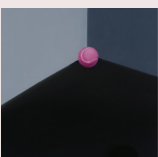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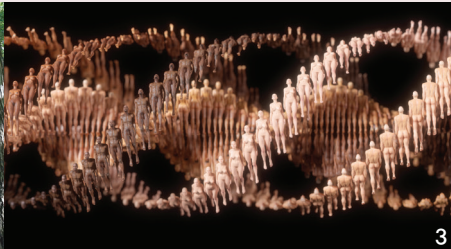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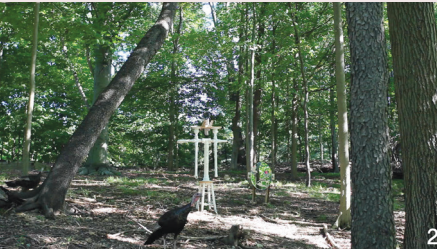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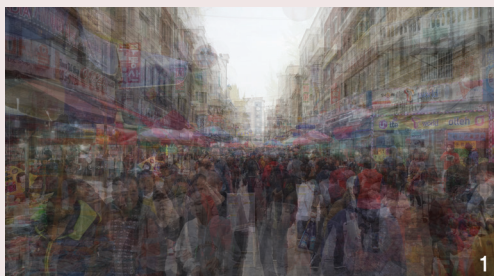
참여 작가 / 김미라, 김세중, 도자킴, 시원상, 신 웅, 양승원, 유나킴, 이다희, 이미성, 이민경, 전강희, 전희경, 정철규, 태 우

김해(윤슬미술관) 2018년 5월 10일(목) - 5월 31일(목)

참여 작가 / 고우정, 김정남, 김진휘, 김형준, 남효진, 박도현, 신예진, 윤성호, 장용선, 정민지, 조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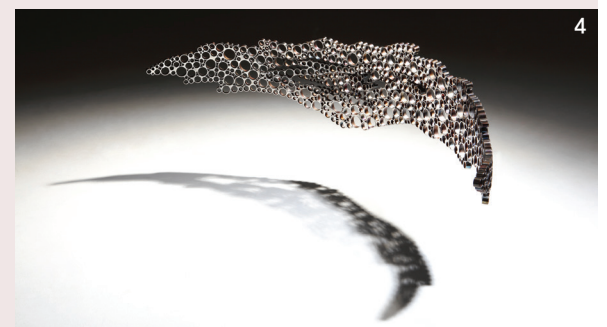
안산 작가

1. 전강희: 원곡로, 디지털 프린트
2. 김미라: The Entertainer 2017, 싱글채널비디오
3. 이미성: Gene Pool of Liquid Crystal, 컴퓨터그래픽영상, 미디어월, 컨트롤러
4. 정철규: 귀를 보고 하는 말 01, 캔버스에 유채



김해 작가

1. 고우정: In The Meantime 그렇게 그곳에 그 사이에 있는
2. 김정남: 너도 예쁘다. 1, 조합토, 색안료, 투명유
3. 김형준: Modern Nature 2015-2, 한지에 먹과 색
4. 장용선: Particle 170531, scorched stainless steel



안산의 미술 인프라



경기도립미술관

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경기창작지원센터

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최용신기념관

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



정문규미술관

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유리섬박물관



이폴실내박물관

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단원미술관

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성호기념관

㉔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어촌민속박물관

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9



종이박물관

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남로 233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코너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 집니다. 아기사진(또는 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과 아기이름 · 생년월일 · 성별, 부모이름, 주소, 연락처, 태명, 태몽, 사연(탄생이야기,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재 후 소정의 원고료(5만원)를 드립니다.
(대상 :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후 ~ 24개월즈음 아이를 둔 출산 가정)
※ 나비잠 :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뜻하는 순우리말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 아이

아기이름: 백건하

출생년월: 2016.9. 태명: 축복이

태몽: 굵고 긴 뱀이 시어머님 다리를 무는 꿈

축복이는 우리 집 셋째입니다. 애들 셋을 데리고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은 “애가 셋이네. 부자네 그러. 부자야” 그러십니다. 양육비 부담과 맞벌이로 힘든 요즘에는 셋 키우기가 금전적으로나 근력으로도 힘든 게 사실이지요. 저 또한 그런 부담이 많이 있지만 이제 18개월이 된 셋째를 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마냥 예쁘기만 합니다.

첫째를 낳았을 땐 도무지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처음이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 인터넷을 아무리 뒤지고 육아서를 찾아봐도 글로 배운 지식이고 서툴러서 아이는 울고 저는 답답했었어요. 둘째를 낳았을 땐 엄마의 사랑을 나눠가지게 된 첫째의 질투와 두 아이를 동시에 봐야하는 육체적 고단함으로 몸과 맘이 많이 지쳤었어요. 그러다 두 아이 양팔 내어 주고는 힘들어서 셋이서 울다가 잠든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힘든 데 셋째는 어떻게 낳았냐구요? 지식은 하늘이 준다는 말 있잖아요. 제 자식이 되려고 온 아이. 그저 우리를 더 축복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태명을 ‘축복이’라고 짓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업



마가 되리라는 마음으로 그 지긋지긋하고 힘든 입덧을 견디고 낳았답니다. (입덧이 너무 너무 심해 산부인과에서 입덧 링거를 매주 맞아가며 견뎌거든요.)

셋째 육아는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체득한 지식은 많고 아이 다루는 솜씨가 노련해 지긴 했지만 제 나이도 그 사이 많이 들어버린지라 육체적으로 기운이 달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찌 어찌 잘 견디고 시간이 흘러 셋째가 18개월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돌 일 때 보다 훨씬 풍성하고 웃음이 많아진 듯해요. 특히 저의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세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내 아이들이 누구보다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보다 다 함께 어울려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아진답니다.

아이들로 인해 더 푸근하고 풍성한 삶에 감사하게 되어 그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감히 바래봅니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

안산시 상록수 · 단원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상록수 · 단원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장려를 위해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전에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예상치 못한 엄마와 태아의 질병을 동반한 임신부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관련 질환을 동반해 치료를 받았을 때 소요된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위에 명시된 5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은 출산 산모로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4인 가족 기준소득 8,135,000원 이하) 가정이 해당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 (031-481-2573)

저소득층에 기저귀 · 조제분유 24개월 지원 기저귀, 분유 걱정 덜고 예쁘게 키우세요

안산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 · 조제분유를 지원 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80만원)이하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 신청시점부터 만 24개월까지 월6만4000원이 지원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뒤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77)
단원보건소 (031-481-2563)

하윤이 탄생이야기

아기이름: 엄하윤 출생년월: 2017.1.

태명: 힘찬이

태몽: 호랑이가 안기는 꿈

우리 하윤이는 2017.01.26.생으로 우리 부부에게 온 둘째 아이입니다. 이쁜 태명을 지으려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라는 바람으로 ‘힘찬이’로 결정했어요, 할아버지께서 태몽을 꾸셨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품에 살포시 안겼다고 합니다. 태몽이 호랑이인 걸 생각하면 ‘힘찬이’라는 태명이 더욱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힘찬이는 엄마 뱃속

에서 어찌나 힘찬 발길질을 하던지 엄마가 배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윤이가 태어나면서 부부 금슬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아이의 예쁜 웃음에 저희도 웃어요. 특히 눈웃음이 예쁜데, 그 웃음을 보면 누구든 하윤이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일 상입니다.

첫째 딸인 하정이가 동생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흔히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해서 미워하곤 한다는데 그렇게 전혀 없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아— 첫째딸인 하정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본오동 얼짱 스타로 유명한 아기랍니다♡(아빠착각?ㅎ)

사랑하는 하윤아~ 우리 가족의 행복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의 미소가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를 매일 행

복하게 만들어. 그 미소 잃지 않게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하고 더욱 사랑할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를 소개합니다.

전라남도
해남

○ 우항리 공룡박물관

‘우항리 공룡박물관’은 세계 최초로 익룡, 공룡, 새 발자국이 동일 지층에서 발견된 지역에 세워졌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익룡 발자국 등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 시대 형성된 공룡들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페달식 자전거 10대(2인용 7대, 4인용 3대)와 전기 자전거 9대 등 총 19대로 구비 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관람하기 좋다.

○ 땅끝모노레일카

‘땅끝모노레일카’는 땅끝을 찾는 관광객에게 국토순례 시발지인 땅끝의 아름다움을 더욱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장애인, 노약자 등 땅끝 전망대까지 오르기 힘들었던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

○ 땅끝오토캠핑장

아늑한 해송 숲에 서남해 바다를 조망하고 있는 ‘땅끝오토캠핑장’은 아름다운 전경과 최상의 부대시설로 캠핑족 사이에 입소문 났다. 최대 42동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캠핑장 및 캠핑카 9동과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완비해 캠핑 초보도 어려움 없이 즐길 수 있다.

○ 가학산 휴양림

‘가학산 휴양림’의 소나무 군락은 해남을 넘어 우리나라 최고 자랑이다. 휴양림 전 지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피로를 풀어줘 어디서든 느끼기 힘든 힐링을 제공한다. 산막 7평 9동, 12평 4동, 야영장 1개소, 오토캠핑장 1개소 등이 자리하고 있어 일일 최대 7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산막 등 야영장 이용은 예약 필수!



○ 명량대첩 해전사기념전시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와 민초들의 희생정신이 깃든 ‘명량대첩 해전사기념전시관’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대첩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되어 있다.(매년 10월 경 명량대첩축제 개최)

○ 두륜산 케이블카

두륜산 고계봉정상에 설치된 ‘두륜산 케이블카’에 오르면 난대수림 및 소나무 숲길 따라 남도의 사계와 다도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보여 더욱 멋진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두륜산 케이블카는 국내에서 가장 긴 1.6km 선로를 이용해 초속 3.6M으로 8분(편도시간)정도 이동한다.

○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오토캠핑리조트

송호리 해수욕장 인근의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오토캠핑리조트’는 최대 6인까지 지낼 수 있는 대형 캐러반과 250석 규모의 오토캠핑장이 마련되어 있다. 천연잔디구장, 수변 생태공원, 황토문화체험관 등 편의·휴식공간도 두루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캠핑객이 이용하기 좋다. 앞바다에 나가면 낚시, 갯벌 체험 등도 할 수 있어 런닝맨을 비롯해 TV 프로그램 촬영지로도 각광 받는 장소이다. 소나무 숲과 바닷가에 잇닿은 땅끝 최고의 풍광을 자랑한다.

◇ 문의 : 해남군청 기획홍보실(061-530-5462)



관산도서관, 함께 공감하는 책임기 운동 ‘북크로싱’ 운영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장 꼴찌와 서 반장/송언」, 「미치도록 가렵다/김선영」, 「피프티 피플/정세랑」을 중심으로 안산의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책임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산도서관은 ‘함께 공감하는 책임기’를 통해 자발적인 시민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책을 돌려 읽으며 시민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크로싱 독서운동’을 연다.

‘북크로싱(Book-crossing)’은 책을 읽은 후 책에 메시지를 적어 공공장소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두면 그 책을 발견한 사람도 책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책 돌려 읽기 운동이다. 집에서 한 번 보고 책장에 꽂혀있지만 한 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해 돌려 읽

며 자신의 서평을 쓰는 과정 등을 통해 독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북크로싱은 안산시민과 공직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북크로싱 독서모임, 북크로싱 단체 참여, FREE 북크로싱,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교환전으로 운영된다.

2014년 관산·당곡작은도서관에서 8명으로 시작한 독서모임은 올해 단원어린이·선부·대부·원고잔도서관으로 확대해 6개 도서관에서 7팀이 참여한다. 2018 안산의 책을 포함, 시민이 추천한 후보도서 등 북크로싱 추천도서를 함께 읽은 후 2주에 한 번 독서모임을 갖고 토론을 하며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독서모임은 상·하반기로 진행된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체 참여도 모집 운영한다. 학년·학급 단위 또는 교내 독서동아리가 북크로싱을 신청하면 단체에 안산의 책 1권과 자유선택 도서 1권을 지원해준다. 9월까지 밑줄 긋기, 독서골든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를 돌려 읽고 결과물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우수단체를 시상한다.

안산의 책 선포식에서 릴레이독서 첫 주자들에 책을 전달하며 FREE 북크로싱을 전개한다. 도서관 자료실, 카페 등 공공장소에 북크로싱 추천도서를 비치하고 자유롭게 독서 후 추천 메시지나 감상을 남기면 된다. 4·6·9월에는 도서관교환전을 열고 도서관 시 추천메시지를 받으며 북크로싱으로 이어간다. 9월에는 작가와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문 의 : 관산도서관(031-481-275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중앙도서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아시나요?

월(月) 1인당 5권 신간서적 서점에서 바로 대출가능



중앙도서관은 안산시민의 독서생활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바로 대출제”를 시행,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책을 좋아하는 B씨는 ‘중앙도서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가 여간 반갑지 않다. 안산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월 5권까지 서점에서 바로 대출이 가능해, 경제적 부담 없이 신간서적을 빌려 볼 수 있어서다. B씨는 국립도서관 이달의 추천도서나 일간지 서평 난에 소개되는 신간서적을 메모해 뒀다가 틈나는 대로 지역 서점에 들러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로 책을 대출한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도서관 희망도서 대출이나 신간코너를 통해 2주 후에나 원하는 책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스마트 폰으로 신청하고 바로 빌리는데요. 참 감사하죠.”라고 B씨는 말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이용하려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후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코너에서 빌리고자 하는 책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 후 바로 대출가능여부가 표시된다. 발행된 지 5년이 지난 책이나 참고서, 도서관 비치 도서를 제외하면 원하는 대부분의 책을 바로 빌릴 수 있다.

대동서적 중앙점 김은정 대리는 “대출승인 된 책들을 미리 뽑아 놓고 찾으러 오시길 기다리는 데, 서가 한 칸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책들 중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책들도 있어서, 독자들의 관심분야가 얼마나 폭 넓은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2016년 우수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2017년에는 대상회원을 500명으로 늘렸고 올 2018년 2월 28일자로 도서관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중앙도서관 김영란 담당자는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이용 시민에게는 만족을 주고 지역서점은 매출 증대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참여 서점은 안산문고, 원곡서점, 한가람문고, 대동서적(사동점·중앙점)으로, 그간 우수회원에게만 제한되었던 혜택을 올해부터 확대하여 안산시립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월 5권씩 14일간(1회 7일간 연장가능)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문 의 : 중앙도서관(031-481-386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도서관 주간이란? 매년 4.12. ~ 4.18.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하였다.

세계 책의 날이란? 매년 4.23.

유네스코에서 1995년 독서출판을 장려하기 위해 정하였으며,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4월엔 도서관에 가자!"

현재의 좌표를 알고 미래의 길을 밝히는 역사이야기 중앙도서관, 깊이 읽는 인문학 ‘한국사 깊이알기’



지난해 ‘길 위의 인문학’으로 안산 시민을 만났던 심용환 역사학자가 다시 중앙도서관을 찾아 ‘깊이 읽는 인문학-한국사 깊이알기’ 강연을 한다.

심용환 역사학자는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퍼져 나갈 때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으로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려 화제가 됐으며, 이후 진짜역사 가짜역사, CBS 심용환의 근현대사 톡바로보기, tvN ‘어쩌다 어른’, JTBC ‘말하는 대로’ 등 언론과 방송에서도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우리의 근현대사’를 주제로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강연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해방을 맞이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격동의 한국근대사와 1945년 해방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현대사를 다룬다.

3월 15일,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은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 등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로 만석

을 이룬 가운데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선은 왜 멸망했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이 시작됐다. 심용환 역사가는 황제국이었던 중국이 청프전쟁, 청일전쟁에 패배함으로써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침몰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격랑에 몰아넣은 동아시아 주변국, 세계 열강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야기한다. 조선 말 개항을 둘러싼 논쟁을 벌일 때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 두려움을 넘어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둘째 날은 침체에 빠진 독립운동 열기를 고취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일투쟁을 벌인 ‘의열단’ 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들려주며 조국을 위해 희생된 우리 영웅들도 희노애락을 느끼던 사람이었음을, 빈부와 신분의 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특히 남녀평등을 강조한 임시정부를 통해 평등한 미래를 꿈꾼 여성광복군의 이야기 속에서 현재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맥락을 살핀다.

고잔동에 사는 김소영 씨는 “학창시절에 전공과 무관했던 탓에 우리 역사를 따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현재 우리의 정치상황을 겪으면서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고, 인물이나 사건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그려주는 심용환 강사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 공감되어 열심히 강연을 찾아다니며 듣고 있다.”며 “현대사 강의도 무척 기대된다.”고 했다. 심용환 강사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으로 당연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역사라는 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오늘, 한 시민으로 역사와 어떻게 관계 맺기 할 수 있을지를 재촉한다.

◇ 문 의 : 중앙도서관(031-481-270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여유 있는 문화 산책 단원미술관, 4월 전시 이모저모

상록수조각회원전-봄꽃향기전

상록수조각회는 안산을 연고로 1997년 첫 전시를 시작해 현재까지 매년1회 이상 정기 회원전을 개최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조각작품 또는 설치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다. 이번 전시는 12명의 회원이 작가의 감성을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승화시킨 2~3점의 창작품을 출품해, 관람객과 함께 감성을 교류하며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일시 : 4월 9일(월)~4월 15일(일)

수미회전

수미회는 2000년 4월 4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10명의 회원이 첫 전시회를 열었다. 수채화, 유화, 비구상 등 다양한 작품과 먹을 이용한 다양한 표현 기법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수요일에 만나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린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수미회’는 이제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의미로 ‘빠어날 수’자를 넣은 ‘수미회’라는 자부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수미회 회원들은 “훌륭한 미술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살피는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맑고 아름다운 수채화 작품인 것 같다.”고 자랑한다. 수미회는 3년 후 20주년 정기전은 보다 뜻 깊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회원 간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작품으로 해외 전시를 꿈꾸고 있다.

▶ 일시 : 4월 16일(월) ~ 4월 22일(일)

단원작가회전

단원작가회는 안산의 대표적 인물인 단원 김홍도의 업적을 기리며 김홍도 미술의 사상과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자 1993년 5월 11일에 발족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단원작

가회전은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판화 등 평면작업 100호 정도 크기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단원작가회는 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역량 있고 명망 있는 작가들이 모여 만든 우리 지역 최초의 미술 전문 단체이며, 안산미협이 탄생하는데 초석을 다진 전통 있는 단체이다.

전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안산이 산업, 해양도시 뿐만 아니라, 미술과 체육, 음악의 인프라를 갖춘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 데 한몫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작가의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현대 미술의 작가적 진로를 모색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할 것이며, 안산 미술문화의 꽃을 피우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일시 : 4월 23일(월) ~ 4월 29일(일)

◇ 문 의 : 단원미술관(031-481-050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미술전문단체 ‘단원작가회’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 참석... 3.1 운동 뜻 기려 안산초등학교서 열린 기념식 참석 후 만세길 걷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1일 상록구 수암동의 안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99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민근 의장과 정승현 부의장,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 윤태천 문화복지

위원장,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 등 의원 일행들과 안산시장, 광복회 회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경건한 자세로 3.1운동 경과보고와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의 기념식 의전에 참여하면서 일제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 뒤에는 시민들과 함께 안산초등학교에서부터 '3.1운동 기념비'까지 걸으며 99년전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쳤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좇기도 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안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만세 운동이 펼쳐진 수암동에서 시민들과 함께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당시 일제에 항거한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지역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수암동은 1919년 3월 30일 당시 인근 18개 리(里) 주민 2천여명이 참여한 안산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이 전개됐던 역사적 공간으로, 이를 기리기 위해 수암동 511번지 일원에 3.1운동 기념비가 들어서 있다.

안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구성 자문위원 위촉... 신뢰받는 열린 의회상 기대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자문위 구성을 마쳤다.

안산시의회가 13일 의장 자문 기구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이민근 의장과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 이만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상주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정영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헌), 김준호 경기신문 부장,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추영희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산지구협의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함께 위촉된 이병길 변호사(법무법인 평정)와 서정훈 안산학연구원 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며,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이민근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은 뒤 호선을 통해 박상주 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의장의 자문 기구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와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에 따른 의원의 국내외 활동 승인 사항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선임된 박상주 자문위 위원장은 "안산 시민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할 것"이라며 "안산시의회가 시민들 곁으로 더욱 다가서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근 의장과 김동규 의회운영위원장도 자문 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자문위원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오는 30일까지... 2조 2150억 규모 1회 추경안 등 심의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가 14일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관련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회의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의회는 이 기간 동안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 14건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22일부터 28일까지는 김진희·박영근·박은경·신성철·이상숙·전준호·정승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시가 제출한 2조 2150억 4694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결위에 앞서 15일부터 21일까지는 4개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29일과 30일에는 2·3차 본회의를 열어 각각 시정 질문과 안건 의결을 실시한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이민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주요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예정"이라며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다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소통콘서트에는 상록구 노인복지관의 노인 회원들로 구성된 '실버행복' 동아리가 출연, 수화 공연을 펼쳐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청소년들의 즐거운 놀이문화터,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



이예나
(석수중학교)

청소년 전용 문화 공간인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한 학생은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컴퓨터 비유

한다. 그 이유는 좋은 이용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다.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다. 이용자들은 정보 검색실, 노래연습실, 닌텐도실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 밖에도 댄스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도 알차다.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 기구와 청소년 활동 영역 두가지로 나뉜다. 청소년 참여 기구에서는 학생회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위원회와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댄스·밴드, 미술, 과학, 봉사 등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활동 영역에는 학교 연계사업, 교육 및 연계 사업, 청소년 활동 영역 인증

제, 특별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선녀 마을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된다.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 있는 박모 학생은 "선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 청소년들이 돈이나 행복과 같은 것이 부족 할 때 청소년들만의 세계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놀 수 있는 곳이라서 좋다."고 말했다.

- 위치: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
- 운영시간: 화요일~금요일- 9시~22시
토요일 - 9시~18시, 일요일 - 10시~18시
- 문의: 선부청소년문화의집(031-485-1155
www.sunbuyouth.or.kr)

장아영
(성안중학교)

즐겁게 배우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석호공원로를 지나가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벽 사이에 끼어있는 노란 자동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선 궁금증을 가졌을 것이다.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곳은 바로 안산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다.

이곳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관람순서에 대한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관람순서는 '길을 건너요', '안전하게 타고 내려요', '안전하게 놀아요', '친구가 다쳤어요', '나도 운전자', 영상관 순으로 다양한 체험 시설들이 있다. '길을 건너요'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골목길을 다닐 때, 신호등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교통 표지판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안전하게 타고

내려요' 코너는 올바른 버스 승하차와 차내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버스 안에서 교육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 '안전하게 놀아요'는 자동차 주변 사각지대 표시와 자전거와 보호 장구 착용을 체험할 수 있다.

'친구가 다쳤어요'에서는 다친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112'에 전화를 걸어 침착하게 대답하는 방법과 대처하는 자세를 배운다. 마지막으로 '나도 운전자'에서는 직접 자동차 운전하기와 퀴즈, 틀린 그림 찾기 등 재밌는 게임으로 안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실외에는 자전거 안전 교육장이 있는데, 자전거 기초 익히기, 자전거를 이용해 횡단보도 건너기 등 꼭 익혀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들을 교육받을 수 있다.



- 위치: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 1
- 실내교육장 운영 시간
평일(단체관람 시 사전예약 필요, 개인관람은 16시부터 가능): 9시~18시 / 토요일(개인관람): 10시~17시
- 실외교육장 운영 시간
평일(수요일 제외) 1일 3회 실시, 4~11월 이용 가능.
- 문의 : 안산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031-502-2572)

최혜원
(원일중학교)

봄을 알리는 안산 식물원

추위가 지나가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 친구,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 식물원으로 가보자. 안산 식물원은 열대전시관, 중부전시관, 남부전시관, 야외 조경 시설로 이루어져 총 합쳐 32만 본이 넘는 많은 식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열대전시관은 사계절 내내 열대식물들을 전시해놓는다. 열대식물에는 야자류, 초화류, 선인장류 등 식물 3,000여 본이 있다. 또한 물레방아 수족관, 장수풍뎅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 평소 식물과 곤충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부전시관은 봄

에만 운영되며 휴면식물들로 1만8000여 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진경산수와 향기 식물인 천리향, 거미줄 바이올, 자태가 아름다운 구절초, 덩굴식물 및 양치식물, 희귀식물인 '설악산 눈주목' 등 희귀한 식물들도 볼 수 있다. 남부전시관 또한 봄에만 운영되며 휴면식물 및 수목 1만6000여 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연꽃과 수련, 향기 나는 나무, 습지 식물과 식용 식물 등도 볼 수 있다.

안산 식물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모씨는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있어서 좋다. 식물원에 오면 마음과 몸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서 자주 이용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산 식물원은 방문하기 전에 안산 식물원 사이트에 들



어가 VR을 통해 자신이 보고 싶거나 궁금한 식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가면 좋다.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13
- 운영시간: 매일 10시 ~ 18시 (설날, 추석 당일 휴무)
- 이용요금: 무료 / 문의 : 안산식물원(031-481-3168)



안산
119안전
체험관

비상시와 흡사한 상황 연출 경험적인 위험 대비 훈련 프로그램 운영

여유롭고 안정된 시절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일상 속으로 숨겨진다.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뒤로 한채 ‘본업에 몰두’하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려면 ‘안전에 대한 지침과 대책’이 일상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는 ‘안산 119안전체험관’을 운영해, 재난 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안전교육을 제공한다. 작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정식 운영되는 체험관은 ‘비상시와 흡사한 상황을 연출해, 경험적·직관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체험관 프로그램은 실물화재 스크린을 활용해 물소화기를 활용해보는 ‘화재진압체험장’,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익히고 지진의 강도를 체험할 수 있는 ‘지진체험장’, 일반상가의 화재상황을 가정하여 연기가 가득한 암흑 속을 빠져나오는 ‘연기대피체험장’, 승강식 피난기를 활용한 ‘비상탈출 체험장’, 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연습해보는 ‘응급처치 체험장’으로 구성됐다.

김명희 팀장은 “아이들에게 지진 상황 시 어떻게 해야 하나 물으면, ‘무조건 숨는다, 그냥 기다린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소화기에 ‘물’만 들어 있는 줄 알았다가 ‘분홍색 가루’가 있다는 걸 알고 놀라기도 합니다.”라며 “안산119안전체험관에서 하는 체험활동은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이라 생각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새싹어린이집 갈수연선생님은 “어린이집에서 매달 4번씩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로 동영상이나 동화책을 가지고 수업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익숙해진 교육 자료에 흥미를 잃고 지루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큰 관심을 갖습니다. 또한 체험관에서 진행한 교육이 실제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본오동 충장로 237, 상록수출동대 내 위치한 체험관은 주중(넋째 주 수요일 제외), 하루에 2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안산소방서 홈페이지(119.gg.go.kr/ansan/) ‘재난안전 참여 서비스’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문 의 : 안산소방서 안전체험관(031-470-7325~7326)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 사진_김진국 기자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발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한 시민사회단체 협력체제 구축



안산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지난 3월 5일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진행했다.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에는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를 비롯해 안산경실련,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도시마을연구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던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되었다. 공동사무국은 안산YMCA와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가 맡았다.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 공동사무국 담당자는 “지난 해 10월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계기로 이후 매 달 7번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발족하게 되었다.”며 “특정 단체가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형태가 아니라 소속 단체, 회원 간 협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발족식 이후에도 어떤 단체든, 민주시민교육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면 안산시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족식은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등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자유롭게 토론을 펼치기도 하고 인권, 평화, 헌법, 노동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그 동안 단체별로 진행해왔던 학교 대상 민주시민교육은 물론 시민 대상 교육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력하고 민주사회의 토대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안산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안산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안산시 관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역사회에 공론화시키고, 제도화를 위해 조례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안산시민교육협의회(031-485-9009)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단기주거훈련시설 ‘이음채’ 운영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단기주거훈련시설 ‘이음채’가 입소자와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기주거시설 ‘이음채’는 내공사와 협약해 다가구주택 3가구를 무상 임대받아 주거훈련시설에 적합하도록 병원과 가정의 중간(Halfway House) 형태로 리모델링, 정신보건전문 요원 4명을 배치해 사회기술훈련·지역사회적응훈련 등을 제공한다. 예절교육과 안전교육 등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술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주민 자치센터의 요가·탁구·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술관·영화관 등 공공이용시설을 찾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는 지역사회적응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기타 입소훈련과 주거체험훈련을 비롯한 증상관리·개인위생·요리·청소·장보기·의복관리 등 1:1맞춤훈련을 제공하며, 질환의 원인·증상·부작용·재발 징후에 대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

내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가족상담과 연계해 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관계자는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는 날이면 회원들은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며 “경기도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관람하고 화랑유원지를 둘러보며 바람을 쐬고, 안산문화원에서 지역을 새로이 알아가는 시간에 큰 흥미 느낀다.”고 말했다. 주치이나 센터 사례관리담당자의 의뢰와 상담을 거쳐 입소하게 되면 2주간 적응기간을 갖고 3~6개월 기초훈련과 6~12개월 집중 재활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용료는 1일 1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50% 경감해준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월요일 10시에 등원하면 혈압·당뇨 등 활력을 체크한 뒤 주말 보낸 이야기를 나누며 주간계획을 세운다. 금요일에는 주말 동안 가정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말 계획을 세운다. 주거훈련팀 박해경 팀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여성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병원 퇴원 후 사회재활훈련이 필요하거나 자립·독립 주거를 준비하면서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 도움 받기 원하는 이들에게 이음채는 늘 열려있으니 놓치지 말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 :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411-7573)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경기도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친환경사회로 전환 노력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구.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 이하 친환경센터)는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녹색제품의 유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친환경센터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녹색구매율이 공공부문은 높는데 비해, 민간부분이 미비함을 설명하면서 녹색구매를 이끌어 낼 방안으로 첫째 경기도 녹색구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둘째 경기도 내 친환경생활지원센터 확대 설치, 셋째 친환경상품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넷째 친환경생활지원센터와 친환경상품사회적기업의

협업을 통한 녹색구매 활성화 사례만들기, 다섯째 경기도 녹색제품 생산업체 육성 및 녹색제품 환경마크 인증비 지원, 여섯째 경기도의 녹색제품 홍보전시 판매장 설치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녹색제품 보급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녹색제품을 체험하게 하는 만남의 장과 환경기업마케팅 지원, 지역에 있는 친환경상품지원센터의 사회적기업 인증 협력, 녹색구매를 위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친환경센터장은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해 경기도민의 녹색구매가 늘어나면 경기도 내 510여 개 친환경제품 생산기업이 활성화돼 시장 및 기업생산체제의 변화를 가져와 친환경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013년 안산에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를 설립·지원해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 의 :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031-485-7733)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소식通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모집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안산시 330명 모집

안산시는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경기도 지원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공고일(2018.3.16.) 현재 경기도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부터 만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로 경기도 총 5,000명 중 안산시는 330명을 모집한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문 의 : 일하는청년통장 콜센터(1800-0104)
경기도 콜센터(031-120)

LED 교체 사업 아파트 모집

아파트 지하 주차장 LED등기구 대상

아파트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등기구 보급사업」 참여 아파트를 추가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형광등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5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참여 아파트 모집 때 발생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추가모집으로, 등기구 약 1,846개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는 안산시청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4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 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3912)

문화재, 정원(庭園)을 품다

보이는 문화재에서, 느끼는 문화재로

안산시는 <문화재, 정원(庭園)을 품다>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안산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정원활동”을 통해 시민이 자연스럽게 탐구·인식하고, 그 가치를 느끼고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를 활용한다.

청문당, 최용신기념관, 성호기념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등 4개소에서 ‘전통가옥을 가꾸는 꼬마정원사’, ‘세상을 바꾼 씨앗, 최용신을 닮은 청소년 정원사’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초·중·고학생, 어르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월 1회씩 총 38회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 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796)



외국인
수기

다문화특구를 소개 합니다



안산의 다문화특구는 십여 개 나라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곳으로 다양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다. 덕분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이주배경 주민이 고향의 맛을 느끼기 위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다. 가끔 남편, 딸과 함께 가서 먹곤 하는데 같이 가주는 남편과 딸이 고맙다. 고향음식 뿐만 아니라 인도 음식에도 도전해 봤는데 나름 훌륭했다. 방문하고 난 다음이면 딸은 또 오자고 말하곤 한다.

주말에 우리 집에 남편 친구 분들과 부인들이 같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그 분들을 모시고 안산 다문화거리를 안내했다. 다양한 구경거리로 모두들 신나했다. 안산 세계문화체험관에 한 시간 정도 머물며 여러 나라의 의상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악기도 만져보고 얼굴에 미소 한가득...그리고 밖에 나왔는데 은행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온다.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주말인데 은행에서 영업을 하네요? 신기해요. 저희 동네는 주말에 은행이 영업을 안 하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원곡동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주말에 영업하는 은행들이 많다. 그리고 평일에는 5시가 아니고 저녁 7시까지 영업한다.

다음은 다문화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문화 광장 모퉁이에는 파출소가 있다. 파출소 앞에 여러 나라 말로 쓰여진 플랜카드 안내문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다른 파출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그 분들은 한참을 서서 안내문을 훑어져라 쳐다본다. 다른 나라 글들을 보고 신기한 듯하다.

다음은 광장에 있는 표지판에도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침을 뱉지 마세요, 큰소리 내지 마세요.>라고 써 있었다. 그걸 보고 한참을 웃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라. 표지판에 그림을...여러 나라의 언어로 안내된 표지판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을... 아마도 그것 또한 그 분들에게 즐거움을 준 것 같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다문화 사회를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또한 그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아마도 많은 이주 여성들이 만족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 또한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의 과거 추억을 회상하며 글로 남기고자 이 글을 쓴다.

바람이 있다면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여기 특색 있는 다문화특구를 널리 알려 관광지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 글은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에서 발간한 '수기집'에 실린 것으로, 일부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지만, 글쓴이의 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 그대로 표기함.)

• 오옥란(단원구 신길동)



독자
투고

안전 1번지 안산시는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요

며칠 전 제천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가슴이 철렁했다. 거기에 형님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계셨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무사했지만 그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전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끔찍한 대형 참사가 계속 일어나 항상 불안하다. 건강이 최고라고 말들 하지만 요즘은 건강보다 안전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질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지만 안전을 소홀히 하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경기도내 최초로 시설안전인증제를 도입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자주 가는 영화관이나 각종 판매시설, 병원, 복지관 같은 시설물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시민안전점검단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해 보수·보강 완료시 인증해 주는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우리 안산시민들은 공공 건물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배라고 한다. 각종 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범죄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제는 누굴 탓하거나 기댈 필요 없이 내가 사는 고장,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 안산시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일에 시민들 스스로 나섰으면 한다. 안전의식을 키우고 작은 사고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 가족 중 한명이 낡은 집의 담벼락이 무너져 다치거나 죽었다면 이런 청천벽력이 또 있을까.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안산을 전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보자. 각종 안전사고 최저의 도시를 만들어 전국민들이 이사를 오고 싶게 만들자.

• 이세영 (단원구 사세충열로1길)



www.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앱,
이렇게 설치하세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동네 공약 제안』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가 참여하는 『우리동네 공약 제안』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집된 희망공약을 정당 등에 전달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시기: 상시가능
- ◇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 → 「분야 별정보」→ 「우리동네 공약제안」 • ‘선거정보’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 • 우수공약 제안자에게는 노트북 등 기념품 제공



추억을 돌려드립니다



- ◇ 기간: 2018. 4. ~ 12.
- ◇ 내용: 옛날 비디오테이프를 디지털파일로 무료변환서비스
- ◇ 신청대상: 안산시민(가정에 2개 이내 가족행사 비디오테이프)
- ◇ 신청방법: 매월 초 인터넷 선착순 접수(월별 인원수 한정)
- ◇ 홈페이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http://wm.ansan.go.kr>)
- ◇ 문의처: 안산시 여성비전센터(031-481-2763)

한양대학교 ERICA 지스쿨(G-school)



- ◇ 선발분야: 실용음악, 실용무용, 미술, 골프, 로봇
- ◇ 선발대상: 초3~중3학년
- ◇ 선발인원: 각 분야 및 학년별 6~12명
- ◇ 접수기간: 2018. 4. 2(월) ~ 4. 20(금)
- ◇ 전형일: 2018. 5.12(토)
- ◇ 교육기간: 2018. 5.~2019.4

- ◇ 교육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사회교육원
- ◇ 수강료: 초등부 월24만원/ 중등부 월28만원 (실용음악: 초등 월28만원/ 중등 월32만원)
- ◇ 문의: 031-400-5843~6, 5850
-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수강료 무료 (응시료는 개인부담)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cec.hanyang.ac.kr) 참고

창으로 나눔을 함께 실천해 나갈 신규단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 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알토
- ◇ 응시자격: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60세 이하 여성
- ◇ 접수기간: ~ 2018. 4. 30.
-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8)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 및 새소식란 참조

사회적기업 '은빛동지' 수강생모집

스마트폰 사진으로 영상만들기, 인터넷 등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이 무료로 진행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접수: 상시
- ◇ 내용: 한글문서편집, 인터넷, 동영상제작, 사진촬영 등
- ◇ 위치: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2길 20
- ◇ 문의: 사회적기업 은빛동지(031-418-4089)

우리지역 웹툰 활동가 양성과정

- ◇ 신청기간: ~ 2018. 4. 4.
- ◇ 교육기간: 4. 5. ~ 7. 12. 매주 목 13시~15시(총15회)
- ◇ 장소: 안산시 평생학습원 여성비전센터
- ◇ 대상: 20세 이상 시민 20명
- ◇ 내용: 웹툰기초과정(캐릭터 · 배경 그리기, 펜터치 등)
- ◇ 문의: (사)웹툰협회 안산지부(사무국장 010-3308-0813)

안산시여성합창단 단원모집

안산시여성합창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합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개최일시: 2018. 4. 5. 14시~ 16시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
- ◇ 참여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
- ◇ 주최/주관: 안산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마련



책 읽는
안산안산의 책과 함께 즐기면 좋은책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은 책이 만든다”아
동

장꿀찌와 서반장

저자 송언
출판사 잇츠북어린이

『장 꿀찌와 서 반장』은 “늘 꿀찌만 도맡아 하고 학교에서 ‘미운 털’인 아이”와 “늘 반장만 도맡아 하면서 학교에서 ‘황금 털’인 아이”의 다른 입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앞뒤로 담은 창작 동화이다. 두 아이의 너무나 다른 학교생활 속에서 약자에 대한 관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는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관심 받지 못하는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시간가게

저자 이나영
출판사 문학동네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삶을 유예시키다. 우리 역사와 정서를 담아낸 『보름달문고』 제53권 『시간가게』.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해온 동화 작가 이나영의 첫 번째 장편동화이다. 오직 1등이 되기 위해 날마다 10분의 시간을 사는 대신 과거의 행복한 기억을 잃어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는 소녀 ‘윤아’의 이야기를 속도감과 긴장감 넘치게 담았다. 그림 작가 윤정주의 매력과 개성 넘치는 그림을 함께 실었다.



수상한 아파트

저자 박현숙
출판사 북멘토

엄마 아빠와 따로 살게 된 ‘여진’이는 고모가 사는 아파트로 온다.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었다는 이 아파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벽만 쳐다본다. 이 삭막한 아파트에서 적응하려 애쓰던 여진이는 엘리베이터가 자꾸 22층에서 멈추는 걸 발견한다. 그러던 중 22층에서 내려온 엘리베이터에 아무도 없이 묵직한 비닐봉지만 놓인 것을 보고 22층에 누가 사는지 찾아보기로 하는데...

청
소
년

미치도록 가렵다

저자 김선영
출판사 김선영/자음과모음

저자 특유의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섬세한 문장으로 지금을 살고 있는 청소년과 어른, 모두가 한결 같이 앓고 있는 가려움, 불안에 대해 조명한 작품이다. 수산나고등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도서관을 꾸려가던 수인은 울창한 수풀 속에 방치해둔, 낡은 목조 건물의 도서관이 있는 형설중 사서 선생님이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오즈의 의류수거함

저자 유영민
출판사 자음과모음

서울의 ‘밤의 세계’를 배경으로 기존 청소년문학의 한정된 학교, 학원, 집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낮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펼쳐낸 작품이다. 세상이 잠든 사이 의류수거함을 찾아다니는 주인공 도로시가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일기장을 발견해 그 주인을 찾아주고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저자 고정욱
출판사 애플북스

까칠한 재석이와 친구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재석이와 친구들은 은지를 돕기 위해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관념과 심각한 성문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고 그 사이 각자의 꿈을 구체화시켜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자기 몸과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간다.

성
인

피프티 피플

저자 정세랑
출판사 창비

정세랑의 장편소설 『피프티 피플』.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창비 블로그에서 연재되었던 작품으로 수도권권의 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또는 단단하게 연결된 50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50개의 장으로 구성된 소설 속에서 병원 안팎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곤경과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사고들,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들이 흥미진진하면서도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조선이 버린 천재들

저자 이덕일
출판사 옥당

역사학자 이덕일이 한국사 인물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던진다. 바로 ‘시대의 질서와 이념에 도전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대에는 이단아로 배척받았거나 멸문지화를 당했으나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의미를 던져주는 역사의 선각자들이자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이다. 저자는 시대의 벽을 넘어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22명 혁명가들을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 앞에 불러내 시대를 보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

저자 구작가
출판사 예담

세상이 조용하다고 생각한 한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나중에는 자신만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었던 소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모양을 보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었던 소녀는 자신 대신 소리를 들려줄 귀가 큰 토끼 ‘베니’를 그리기 시작한다.